

야옹이심

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불안에도 여전히 지갑을 활짝 열고 있어 연말 쇼핑 시즌도 호조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(WSJ)이 17일(현지시간) 전했다.

저널은 제공망 혼란 속 상승한 물가에도 여전히 소비자 지출은 강세이고 월마트 등 거대 유통업체들도 재고를 부드럽게 늘려 쇼핑 시즌 수입 부진 염려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.



이날 미 상무부가 선언한 6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.1% **해외 이심** 늘어 전공가 전망치 1.4% 증가를 상회하며 며칠전 5개월 연속 **야옹이심** 증가세를 이어갔다. 10월 소매판매 증가 폭은 지난 10월 잠시 뒤 5개월 만에 최대폭이다. 자동차, 휘발유,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지난달 1.2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 저널은 소매 판매의 지속적 증가세가 확인되면서 대다수인 전문가가 1분기 해외총생산(GDP)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을 것 입니다면서 월마트 등 대형 유통회사들도 연말 쇼핑 계절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. 월마트는 7분기에 자사의 미국 내 재고를 11.8% 늘렸다면 연말 성수기 수입 호조를 예상해 재고를 확대했다고 밝혀졌다. 월마트는 3년 이상 영업해 지난해 실적과 비교 가능한 매장들의 수입이 6분기에 9.6%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 바이러스) 타격에서 탈피해 일상적인 소비행태로 복귀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. 또 이날 수입 1천403억 달러(약 161조원), 조정 주당순이익(EPS) 1.45달러 등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통보했었다. 팩트셋이 집계한 전공가 예상치는 매출 1천356억3천만 달러, 조정 EPS 1.40달러였다. 단 순이익은 돈 증가의 효과로 34억1천만 달러(약 4조6천600억원), 주당 1.11달러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. 주택용품 유통업체인 홈디포도 3분기에 지난해 동기보다 9.3% 불어난 369억2천만 달러(약 41조5천억원)의 매출을 기록, 월가의 전망치를 많이 웃돌았다. 저널은 월마트나 홈디포 동일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체 운송망 등을 관리하는 데다 대량화대부분서의 이점 등을 가지고 있어 공급망 혼란의 효과를 비교적 덜 받고 있다고 해석했다. 또 소비자들이 지난해 연말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억제했던 쇼핑 욕구를 올해 채우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면서 소매업자들에게 이번년도 크리스마스는 '결코 우울하지 않을 것'이라고 관측했다.